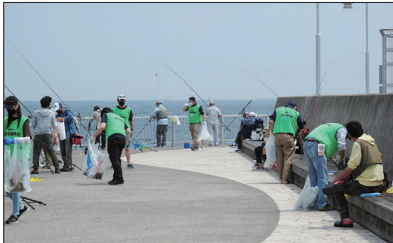


일본낚시진흥회
‘쓰레기 제로의 날’
낚시터 청소행사 개최



재단법인 일본낚시진흥회가 본부 및 가나가와현 지부, 주식회사 다카미야, 주식회사 야마리아, 포인트 요코스카 지점 등에서 나온 18명의 대표자들과 함께 쓰레기 제로의 날을 맞아 가나가와현(神奈川県) 요코스카시(横須賀市)에 위치한 오츠(大津) 항구의 호안 산책로에서 대대적인 청소 활동을 벌였다. 요코스카 시내에는 낚시할 수 있게 공개된 장소가 3개소로 그중 오츠 항구의 호안 산책로가 대표적이다. 1시간 청소 후 40L 쓰레기봉투 19개 분의 쓰레기가 모였고 이중 낚시터 쓰레기는 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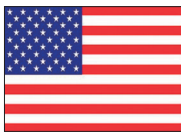
정도였으며 나머지는 펜스 주변의 잡초였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 그밖에 낚시터 현장은 밀밭을 사용하는 낚시인이 다수로 흘리거나 남아서 방치된 밀밭이 많아 이를 닦고 제거하였다. 현재, 일본낚시진흥회는 요코스카시와 협의하여 산책로에 낚시매너에 대한 간판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낚시터 쓰레기 방지에 의해 낚시터가 폐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주체인 담당 공무원과 접촉하여 낚시 매너 간판 설치와 정기적인 청소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도쿄 피싱쇼
내년 1월 21일부터
온라인 개최 결정



일본낚시용품공업회(日本釣用品工業会)가 주최하는 ‘낚시 페스티벌 2022’이 내년에도 온라인 개최를 결정했다. 도쿄 피싱쇼로 알려진 이 행사는, 요코하마시의 파시피코 요코하마에서 매년 개최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 2021년도 행사는 전시회를 중지하고 온라인으로 개최한 바 있다. 내년 2022년 개최 일정을 검토 중이던 주최 측 이사회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전시회가 아닌 온라인 개최를 일찌감치

결정하였다. ‘낚시 페스티벌 2022’는 내년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다시 한 번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온라인 쇼의 공개일정은 2월 말까지로 예정하고 있다. 한편, 매년 2월에 오사카시의 인텍스 오사카에서 개최하고 있는 ‘피싱쇼 오사카’는 내년 2022년에는 온라인 개최가 아닌 실제 전시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다고 전했다.



IGFA
콜롬비아에 레크리에이션 낚시규제 재정 지원



IGFA 남미지역 평의회와 콜롬비아 IGFA 대표들은 콜롬비아국립해양수산청(AUNAP)이 제안한 레크리에이션 낚시 규정안을 제출하는 데 합의했다. 니콜라스델카스티요(Nicolas del Castillo) 국장이 이끄는 콜롬비아 어업 당국은 IGFA가 제출한 규정안을 환영하며 콜롬비아 최초로 레크리에이션 낚시에 대한 규제에 이 안건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 새로운 규제들은 지역 스포츠 피싱의 전반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보존, 포획 및 방류, 윤리적인 낚시 관행의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규제가 통과됨에 따라 AUNAP는 개발 및 시행을 감독할 기술자문 위원회를 만들었으며 콜롬비아 IGFA 대표인 페드로로드리게스와 카를로스하인손이 지명되었다. IGFA 남미지역 평의회는 콜롬비아에서의 성과를 열렬히 환영하고, 낚시에 대한 규제가 전혀 또는 거의 없는 다른 남미 국가들에서도 콜롬비아와 같은 낚시 규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